

선도적 정치투쟁과 민중 지향성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한 국 현대사는 민주질서를 향한 저항과 반민주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통치의 대결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80년 광주에서 국가권력은 야만적 학살을 자행했다. 자유의 수호자이자 혈맹으로 인식되었던 미국이 학살 정권의 지지자가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은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새로운 투쟁적 민중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은 전두환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반 유신·반 박정희 민주화투쟁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던 70년대식 운동과 결별하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민족의 이해를 앞세운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이론의 과학화와 논쟁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쟁과 실천도 비타협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1984년 9월 17일부터 26일 사이, 서울대에서는 4명의 학원 프락치들이 연달아 드러났다. 9월 26일에는 구면의 프락치가 적발되어 특히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그가 잡히자 학생들 중 몇 명이 달려들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안당국은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를 대거 구속, 수배했다.

총학생회는 중간고사를 거부, 학원수호투쟁을 벌였고 1983년 말에 단행된 '학원 자율화조치'(소위 '유화국면') 이후 처음으로 7천 명의 병력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그러나 운동권 일각에서는 학원수호투쟁보다는 청계피복노조 지원투쟁이 당면과제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10월 12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 고가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학생운동의 중요한 임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둘러싼 이러한 견해 차이는 투쟁전술에서도 나타났다.

1984년 11월 2일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된 연합집회는 철야농성으로 6일까지 계속되었다. 11월 3일 전국 42개 대학의 전국학생대표기구 회의가 결성되고 5일에는 선도적인 투쟁을 담당할 '민주화투쟁전국학생연합'(민투학련)이 발족되었다.

민주화투쟁전국학생연합의 발족

1984년 11월 14일 오후 4시 20분 경, 삼삼오오 짝지은 학생들이 종로구 인사동 당시 민정당 중앙당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흠뻑리고 있었다. 이들은 시치미를 떼 채 서로서로 눈짓을 해가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4시 30분, 누군가 "학우여 민정당사로 들어가자"고 소리치는 것을 신호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학생 2백 64명이 당사를 지키고 있던 전경들을 밀어붙이고 일제히 민정당사로 몰려 들어갔다. 단숨에 5층 총재 비서실까지 뛰어 올라간 학생들은 창 밖으로 '우리는 왜 민정당을 찾아 왔는가' 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전투경찰들은 허겁지겁 당사를 에워싸고 최루탄을 쏘아댔다. 학생들이 9층 소회의실로 농성장소를 옮기자마자 뒤따라 들어닥친 경찰은 총재 비서실에 남아 있던 학생 10명을 연행했다.

9층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 투입에 대비해서 바리케이드를 쳤다. 학생들은 '노동악법 개정하라', '전면 해금 실시하라' 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재권(42, 당시 고려대 신방과 4년) 씨는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이 민투학련의 공개조직 내 비공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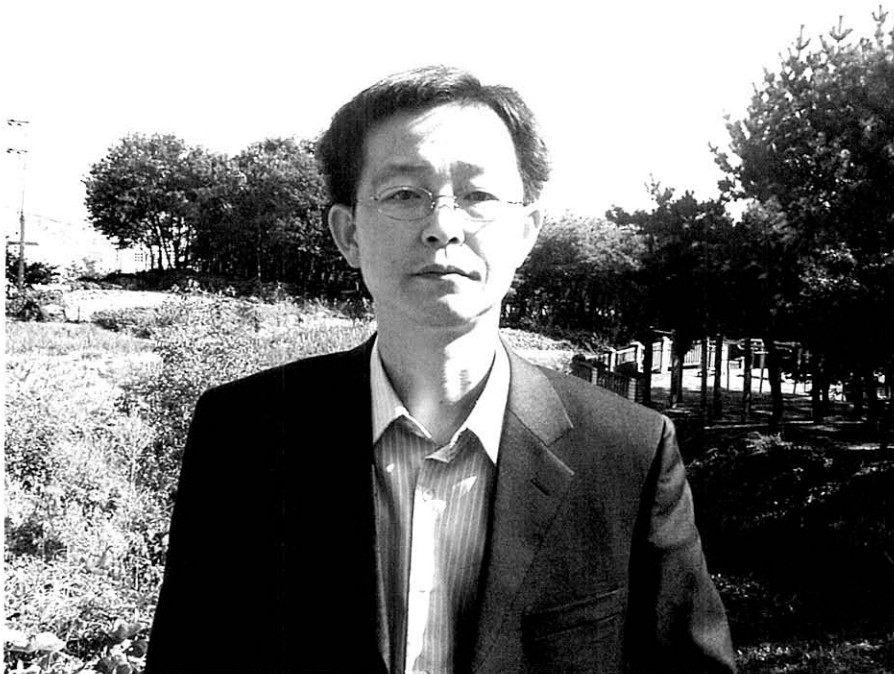
직 안에서 논의되어 결정됐다고 말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농성 하루 전날 각 대학 82학번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렸다.

학생들은 “우리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정치행태를 보여 온 민정당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주장하며 14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1. 대우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김우중 사장은 공개 사과할 것
2. 협진 노동조합과 유니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
3. 청계노조를 인정하고 정한주 노동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
4.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노동약법을 개정할 것
5.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전면 해금을 실시할 것

6.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언론기본법을 폐지할 것
7. 비례대표제를 무시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할 것
8. 군 장성 출신의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9. 고대생 정종욱 사건과 서대문·청량리 경찰서에서 벌어진 여학생 추행사건에 책임지고 치안본부장은 사퇴할 것
10. 경희대생에 대한 반 시위 테러를 지시한 권이혁 문교부장관은 사퇴할 것
11.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즉각 인정할 것
12. 일당 4천 원 이상의 최저임금제 실시와 20% 이상의 인금인상을 실시할 것
13. 추곡가를 20% 이상 인상하고 농가부채를 탕감할 것
14.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할 것 등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이재권 씨는 당시 학생운동가들의 고민을 들려주며 “젊음이 깨어있을 때 역사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믿음을 내비친다.



학생들이 대화의 주제로 잡은 14개 요구조건은 노동문제 5개, 학원문제 4개, 정치문제 4개, 농민과 도시빈민 문제가 각각 1개씩이었다. 민정당 중앙당사를 선택한 까닭을 이재권 씨는 그곳이 전두환 정권의 심장부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각 대학별로 조직된 비공개조직은 언제든지 투쟁 현장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결의에 찬 학생들은 비타협적이고 순

수했다. 학생운동은 이 땅 노동계급의 해방과 독재정권의 타도를 위한 선도투쟁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들은 직업운동가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민정당은 비상이 걸렸다.

민정당 측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할 의원들을 9층 회의실 입구까지 보냈지만 학생들은 경찰이 철수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11월 15일 새벽 2시 20분 경, 민정당은 학생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의 사태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

새벽 3시 30분 경 경찰의 해산작전이 시작됐다. 경찰이 문을 부수자 학생들은 의자를 쌓으며 막았다. 경찰은 출입문 옆 벽을 드릴로 부수어 뚫고 최루탄을 던져 넣었다. 방독면을 쓴 경찰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농성학생들을 당사 밖으로 끌어냈다.

11월 14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해방의 불꽃으로 산화했다. 이날은 한국의 노동절로 기억되어야 한다.”

학생운동의 지향점은 노동해방이었다.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잡은 농성 날짜

광주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폭력적 탄압으로 학생운동을 봉쇄하려고 했다. 그러나 헌신적 투쟁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온 학생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좌절시키고 사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이 보도된 동아일보(1984년 11월 15일)

회민주화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했다.

84년이 되면 학생운동진영의 가열 찬 투쟁과 국가권력 내부의 변화의 결과 소위 ‘유화국면’이 창출됐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12월 22일 131명의 구속학생 석방과 학원에 투입한 경찰병력 철수와 제적학생 복교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학생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화국면을 맞이하면서 학생운동 내에서는 적극적 투쟁을 통한 정권의 본질 폭로를 주장하는 견해와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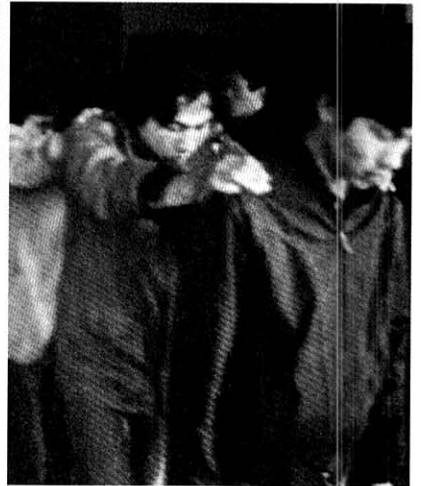
국면의 장기화를 예상하며 합법공간의 광범한 활용으로 대중적인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변화된 학교내의 상황에서 내부 정비와 유화국면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주요 활동방향은 학원자율의 실질적 확보, 즉 ‘학원 민주화’에 맞추어져 있었다.

과감한 정치투쟁으로 유화국면을 타개하자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1월 3일 각 대학 투쟁위원회가 연대한 민투학련이 결성된 것이다.

서울시경은 민정당 중앙당사 농성 사건에 관련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학생 총 2백 72명 중 주동학생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극가담 학생 1백 86명을 즉심에 회부, 나머지 60명을 훈방, 7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경은 발표문을 통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의 일부 운동권 문제 학생들이 조직한 민주화



▲ 당사 점거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민정당 점거 사건 이후 2000년 11월, 대학생 6명이 모 정당 부총재실을 점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 민정당사 벽을 부수고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학생들(오른쪽)
 ◀ 재판정으로 향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구속 학생들(신동아 1985년 5월호)

투쟁전국학생연합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를 하여 자행한 집단적 범죄행위'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기소된 학생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주거침입)만 적용됐다.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주거침입죄만으로 학생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주거침입죄만을 적용한 것은 법정에서 단순히 침입사실만을 놓고 다뤄 정치색이 짙은

변호인들에 의해 법정이 정치투쟁장이 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전략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양심범이 아니라 폭력범이라는 인상을 줘서 처벌의 당위성을 강하게 부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고 강제로 연행했다. 이 사건은 당시 2·12 총선을 앞둔 민정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총선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학생 운동이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민중 지향적이었던 학생운동

선도적 정치투쟁이라는 학생운동의 역할은 85년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삼민투)의 투쟁으로 계승되었다.

전학련과 삼민투는 거의 동일한 투쟁영역을 담당하면서 5월 투쟁과 미문화원 농성투쟁을 주도하였다. 당시만 해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던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5월 투쟁은 전두환 정권을 '학살 원흉'으로 규정하고 '처단'이라는 구호 아래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해방 후 40여 년 동안 성역으로 존재인 미국에게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활동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내외에 정치적 반향을 가져온 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민중지향적인 노학연대투쟁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이 실천적으로 확인되었고 학생운동가에게 있어서 근로 대중과의 결합 문제는 핵심적 고민사항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선도적 투쟁을 담당했던 학생운동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선봉에서 외세와 독재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우리의 역사는 변화, 발전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권 씨는 석방 뒤 구로와 영등포에서 위장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다시 구속되었다. 뒤이어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공장 노조 사업을 하던 중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삶은 학생운동가에서 노동운동가로 질적 변화를 겪는다. 맨주먹과 뜨거운 열정만으로 암울한 시대에 맞서 싸웠던 젊은 그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믿음과 낙관이 있었음을 이재권 씨를 통해 알 수 있다.

“역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제기한다. 대학생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



들이 가진 것은 힘도 권력도 아닌 젊음과 순수한 마음이었다. 개인의 이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젊음이 깨어있을 때 역사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다.”

글 / 서성란

1967년 익산 출생.

1996년 중편소설 『할머니의 평화』로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과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등이 있다.

사진 /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가(<http://nohst.simspace.com>)